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13호

2024.04.09(화) 오후 6시30분~
신일본스포츠연맹
국제교류세미나 안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지난해 10월 초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여만

[단독]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방치 의혹' 남현희 징계 요구

구자준 채널A 기자

체육계를 폄하하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꿔야

빅토르 안, 린샤우젠, 황대헌... 이제 스포츠마저 '적폐'로 몰 것인가

장환수 뉴스핌 기자

[김주혁위원 칼럼]

트랜스젠더 여성과 스포츠

김주혁 미디어파인 기자

[최우열의 네버업-네버인]

2012년 무너진 '80년 禁女의 벽'... '女프로회원'은 작년 소렌스탐이 최초

최우열 문화일보스포츠기자

함께 운동할까요? 베리어프리(무장애)스포츠

체육단체 지도자, 경기인 등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수 의무화해야 기사 모아보기

김최환 에이블뉴스기자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신일본스포츠연맹 국제교류세미나 안내

일시 : 2024.04.09(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ZOOM

링크 : <https://us02web.zoom.us/j/81846777735?pwd=UU0ZHB6aEpoZW1UeFY5Mmk3UkkzZz09>

ID : 818 4677 7735

PW : 933895

체육시민연대 측 발표

스포츠를 통한 시민운동의 실험: 호호체육관

발제자 :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단독]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방치 의혹' 남현희 징계요구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에게 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 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 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 씨의 동업자 전창조 씨가 학부모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과 구체적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지난해 10월 초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비리 근절의 위해 운영 중인 기구로,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 및 비리 신고 사건을 접수·처리 후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를 합니다.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이면 펜싱협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빅토르 안, 린샤오쥘, 황대헌... 이제 스포츠마저 '적폐'로 몰 것인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고의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누리꾼들은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마치 중립적인 듯 인용부호를 붙이긴 했어도 황대헌의 '팀킬 논란'이란 제목을 달고 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헌은 쇼트트랙 로테르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틀 연속 팀 선배 박지원과 충돌해 실격 처리됐다. 황대헌은 16일 남자 1500m 결승에선 선두를 달리던 박지원의 인코스 파고들며 추월하려다가 부딪혔다. 박지원은 꼴찌로 밀려났고,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황대헌은 실격했다. 17일 1000m 결승에선 선두였던 황대헌이 인코스 파고드는 박지원을 밀쳐냈다. 박지원은 펜스까지 밀려나 부딪힌 뒤 경기를 포기했다. 전날과 정반대 상황이었지만, 심판의 탈락 판정은 이번에도 황대헌에게 향했다.

박지원으로선 연금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세계선수권 금메달 2개를 놓쳤고, 국가대표 자동 선발 기회마저 날려버렸다. 둘의 충돌 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황대헌은 지난해 10월 몬트리올 월드컵 때도 1000m 2차 레이스에서 박지원을 밀쳐내 옐로카드를 받고 랭킹 포인트 몰수 조치를 당했다.

◆ 음모론 양산하는 허울 좋은 양심의 법정

특정 선수들 사이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분명 의심의 여지가 있다. 각종 음모론이 나오고, 실제보다 부풀려지기도 하는 것이 이해는 된다. 황대헌은 한국체대, 박지원은 단국대 출신이다. 파벌싸움이 재현된 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진실은 번번이 가해자로 지목된 황대헌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양심의 법정'이란 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한 판정은 당시 상황을 비디오로 꼼꼼하게 분석한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는 게 해답이다. 그게 상식이고, 법치이다. 이미 빙상연맹은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팀킬을 하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혀'라는 단어를 한 문장에서 두 번이나 썼다.

황대헌 역시 "고의는 아니었지만 제 플레이로 동료 선수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치게 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죄했다.

이것으로 끝내야 한다. 쇼트트랙은 종목 특성상 신체접촉이 많은 대표적인 스포츠다. 농구 축구에서 오피스파울과 디펜스 파울이 한끝 차이이듯, 쇼트트랙의 파울 또한 그렇다. 기자가 앞서 황대헌과 박지원이 부딪히는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한 것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게다가 쇼트트랙은 다른 종목과 달리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파울의 가해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피해자 역시 구제를 받아 재경기를 못하는 한 순위 다툼은 접어야 한다. 한국의 올림픽 메달밭인 쇼트트랙이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가 되기 위해선 꼭 해결하고 넘어야 할 벽이다.

201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페이스북 커버 사진에 등장한 안현수. [사진=푸틴 대통령 페이스북]

◆ 빅토르 안과 린샤오쥘의 귀화

세간의 지나친 관심과 압력이 파국을 맞게 한 결과는 또 있다. 쇼트트랙 간판스타였던 안현수(빅토르 안)와 임효준(린샤오쥘)은 각각 러시아와 중국으로 국적을 바꿨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한국을 떠나게 된 계기는 공교롭게도 황대헌과 법정다툼을 벌이면서다. 둘은 한국체대 선후배 사이로 10년 넘게 같이 운동하며 룸메이트를 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그런데 2019년 대표팀 암벽훈련 때 서로 장난을 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 황대헌이 암벽을 타고 있는 여자 선수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장난을 치자, 임효준 역시 황대헌의 골반을 잡았는데 그만 바지가 벗겨지면서 맨살이 일부 노출되고 말았다.

다음 장 계속

황대헌은 사과를 했지만,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일이 묘하게 꼬이게 된다. 빙상연맹은 임효준에게 동성애자라는 악플까지 달리자, 여론에 떠밀려 1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임효준은 링크를 벗어나 법원 문을 두드렸다. 누구나 예상했듯 임효준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번엔 그동안 감정이 상했던 황대헌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소송을 걸게 된다. 1심에선 임효준에게 300만원의 벌금형과 선수 자격, 연금 박탈 판결이 나왔지만 동료 선수와 코치의 탄원서를 받아든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돌려놓았다. 사건 발생 후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까지 2년간 소속팀조차 없이 보낸 임효준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대표팀 선수 겸 코치를 제안한 중국의 귀화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안현수는 영화 한 편을 족히 만들 만하다. 자세한 설명은 너무 길어 압축하면,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 안현수는 부상, 파벌싸움 등 이런저런 악재가 겹치면서 대표팀 선발이 좌절되자 러시아로 떠났다. 한국은 2014년 소치에서 다시 3관왕으로 부활한 그가 있었다면, 소중한 금메달 3개를 추가할 수 있었다. 안현수는 2022년 베이징에선 중국 대표팀 기술코치를 맡아 2개의 금메달을 안기면서 일부 팬들에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한국체대 출신인 안현수가 쇼트트랙의 오랜 파벌싸움의 수혜자인지, 아니면 역차별의 희생양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체육인을 폄하하고 죄악시하는 주위의 시선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태들은 음모론의 시각에서 보면 자극적인 소재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태의 근본 원인은 체육인과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는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게 30년 넘게 체육을 취재한 기자의 오랜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체육계는 폭력과 성 관련 범죄가 난무하고, 학벌과 지역에 따른 파벌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란 편견을 갖고 있다. 스포츠 선수의 사망이나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그제서야 체육 정상화·선진화 방안이니, 스포츠 혁신안이니 줄줄이 내놓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기자는 체육계의 범죄율이 국민 평균보다 높다는 통계를 언제 어디에서도 접한 기억이 없다. '쇼트트랙의 대부'로 불린 전명규 전 대표팀 감독은 파벌싸움의 주범으로 지목돼 연맹 부회장과 한국체대 교수직 파면(지난해 복직)을 당했다. 그러나 이런 그가 사법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아직 들은 적이 없다.

체육인은 무식해서, 경기를 못하더라도 공부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내놓은 체육정책이 산업 문화 의료 건강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근시안적 사고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정부에서 공부 시켜주고, 은퇴 후 일자리까지 챙겨주겠다는 스포츠 혁신안에 체육인들은 정면 반발했을까.

여기서 사족 하나. 2021년 도쿄 올림픽 양궁 2관왕 안산은 최근 자신의 SNS에 한 일본풍 음식점 간판 사진을 올리며 "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는 글을 올렸다. 이 업체 대표는 "한 순간에 친일파의 후손이 됐고, 저의 브랜드는 매국 브랜드가 됐다"면서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또 공인과 사인을 나눌 필요 없이 안산의 생각은 잘못됐다. 안산도 며칠 후 사과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누리꾼들도 좀 더 느긋한 자세로 체육인들을 지켜보고, 응원해주면 어떨까.

트랜스젠더 여성과 스포츠

김주혁 위원 칼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여성이 스포츠경기 여자부에서 뛰다면 공정할까?
서구에서 남성 성기를 지닌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사우나에 입장시켜야 할까?
미국에서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도 여성 사우나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반발을 사는 가운데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부 경기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여자 수영 선수 16명은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가 비수술 트랜스젠더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해 여성 선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비수술 성전환을 한 리아 토머스가 여자 수영대회에서 우승한 기록과 타이틀을 무효화하고 올해부터는 출전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과거 남자대회에서 400위권의 성적을 낸 토머스는 지난 2022년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487.2m)에 출전해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를 제치고 우승했다. NCAA는 당시 토머스가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9년부터 1년 이상 받았다고 그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했다. 토머스와 같은 대학의 수영 선수였던 폴라 스캔런은 지난해 말 미국 하원에 출석해 "남성 생식기가 달린 토머스 앞에서 1주일에 18번씩 옷을 벗어야 했다"며 "여자 선수들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학교측은 우리가 남자 앞에서 옷 벗는 데 익숙해지도록 상담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수영연맹은 22년 6월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 규정을 변경, 12세 또는 태너발달단계 2단계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토머스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되자 반발하며 출전 자격 회복을 위한 소송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월드컵비는 20년 세계 최초로 여자부 국제 대회에 성전환 선수 출전을 전면 금지했다.

국제사이클연맹(UCI)도 23년 남성으로 사춘기를 겪은 후 성전환한 선수들의 여자부 출전을 금지하는 한편 기존 남자부를 '남자·오픈부'로 바꾸기로 했다. 사춘기 이후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남자들과 경쟁하라는 것이다. UCI는 종전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기준치인 혈액 1ℓ당 2.5nmol/L(나노몰) 이하로 2년간 관리하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출전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남성 호르몬을 2년간 기준치 이하로 억제하더라도 남성으로 사춘기를 보낸 덕에 얻은 신체상 이점이 완전히 무력화되는지 과학적으로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이 규정 변경 이유다. 2019년 세계 사이클선수권대회 여자 35~39세부에서 트랜스젠더 레이첼 매키년이 우승한 바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23년 3월 여자 세계랭킹 대회에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했다.

남성 골퍼로 활동하다가 21년 1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헤일리 데이비슨이 24년 1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미니투어 NXXT 클래식에서 우승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미국 NXXT 여자골프 프로 투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생물학적 여성만 출전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은 23년 성전환 선수 규정을 변경, 트랜스젠더 여성은 혈청 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5 nmol/L 미만(만 12세 이전 또는 태너발달단계 2단계 이전에 성전환했다면 최근 12개월 간, 사춘기 이후 성전환은 24개월 간)으로 유지해야 여자 싱글 종목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최근 열린 공립대 여자부 경기에서는 양팀에서 트랜스젠더 선수 5명이 출전해 풀타임을 뛰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했다. 온타리오주 대학체육협회에 등록된 트랜스젠더 선수는 총 6명이며 이 중 5명은 외과적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았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고등학교 여자농구 경기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가 속한 팀과 맞붙은 상대팀에서 부상자가 속출해 결국 경기를 포기하기도 했다.

다음 장 계속

미국 뉴욕주 낫소카운티는 지난 2월 카운티 내 여학생 스포츠경기에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금지했다. 블루스 블레이크맨 카운티 행정관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생물학적 여성보다 뼈대와 근육량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미국 헌법 아래서 보호받는 여성과 소녀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주는 낫소카운티의 행정명령은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뉴욕주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성전환 선수의 경기 참가를 일절 불허하다가 2004년 5월 성전환 수술 시행, 바뀐 성별의 법적 인정, 최소 2년의 호르몬 치료 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 허용했다. 15년 다시 성전환 선수의 운동 경기 참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선수라도 최소 1년 전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nmol/L(리터당 나노몰) 이하임을 증명하면 출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전환 수술 시행 조건은 삭제했다. 21년 11월 발표한 권고안에서는 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 기준도 없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만으로 경기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호르몬 수치 대신 성전환이 실제 경기력 우위로 이어졌다는 경험적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게 IOC의 입장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으로 각종 경기 단체가 이를 참고해 자체 규정을 만든다.

이에 대해 토미 룬드베리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원을 비롯한 스포츠 생리학 연구자 26명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경기력 격차를 살펴봐야 한다는 IOC의 성전환 선수 '포용 지침' 권고안을 비판하는 공동 연구를 최근 스칸디나비아 스포츠 의·과학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남성으로서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된 데 따른 각종 신체적 이점은 여성으로 바꾼 이후에도 호르몬 요법을 받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여성 경기에 성전환 선수를 포함하는 조치는 공정성, 혹은 (여성 선수들의) 안전과 공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문은 “IOC의 (성전환 선수의 생물학적) '우위 추정 금지' 원칙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여성 스포츠에 공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IOC는 권고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내에서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가 지난해 강원도민체전 사이클 여자부 경륜 등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낸 바 있다. 그는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별로 구분해 경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한 여성 전용 스파는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회원 가입 신청을 거절했다. 남성 성기를 지닌 트랜스젠더 여성은 다른 여성 고객과 직원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당사자는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냈고, 인권위는 차별금지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스파측은 인권위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시애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림퍼스 스파 이명운 대표는 “여성 전용은 생물학적 성별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고객의 안전과 법적 보호, 그리고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옷을 벗고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여자들만 있는 사우나에 남성의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고객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이용객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전에도 남성 성기를 노출한 이용자 때문에 굴욕감, 트라우마를 호소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대다수 고객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올림퍼스 스파는 법원 판결의 부당성에 맞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연방 항소 등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1년에도 LA한인타운 W스파 여탕에 남성 성기를 지닌 트랜스젠더가 버젓이 출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여성 고객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여성 고객이 “왜 여탕에서 남성이 벌거벗고 다니도록 허용하느냐”고 항의하자 직원은 고객이 여성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배상금(최소 4천달러)을 물지 않으려면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여성 고객 5명이 경찰에 신고했고 문제의 인물은 공공장소 음란노출죄로 기소됐다. 스파 앞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파 여탕 출입 문제를 두고 격렬한 찬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트랜스젠더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나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2년 무너진 '80년 禁女의 벽'... '女프로 회원'은 작년 소렌스탐이 최초[최우열의 네버 업-네버 인]

지난해 10월 스웨덴 출신의 프로골퍼 애니카 소렌스탐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회원 가입 소식이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1932년 개장해 1934년부터 남자골프 4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마스터스를 개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은 마치 비밀결사 단체를 떠올리게 할 만큼 폐쇄적인 회원 관리 정책으로 유명한 골프장이기 때문이다. 오거스타 내셔널의 회원은 항상 300명 내외로 유지되며 기존 회원이 사망하거나 탈퇴해 빈자리가 날 경우에만 새 회원을 뽑는다.

자리가 났다고 해서 원하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기존 회원의 추천과 전체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승인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이 워낙 까다로워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역대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조차 회원 투표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가까스로 가입에 성공했을 정도다.

대외비 정책에 따라 회원 명단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그래서 같은 회원이 아니면 누가 오거스타 내셔널의 회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베일에 가려 있던 회원 명단이 딱 한 번 외부로 유출된 적이 있었다. 지난 2004년 미국의 일간지 USA투데이는 처음으로 300여 명에 이르는 전체 회원 명단을 입수해 공개했다. 명단에 따르면 오거스타 내셔널 회원들은 평균 연령이 72세에 이르며, 동부와 남부의 전통적인 백인 부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개장 이후로 무려 80년 동안 여성 회원을 받지 않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오거스타 내셔널의 시대착오적인 회원 정책은 2002년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여성 회원을 허용해 달라는 마사 버크 전미여성단체협의회(NCWO) 의장의 편지에 발끈한 당시 오거스타 내셔널 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오거스타 내셔널의 금녀(禁女) 정책은 오히려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듬해 마스터스 대회장 바깥에서는 연일 여성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대회를 후원하거나 광고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의 발표도 잇따랐다.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여성 고객을 의식한 IBM과 코카콜라, 씨티은행 등 마스터스의 주요 후원기업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그러자 오거스타 내셔널은 아예 기업광고 없이 대회를 치르는 초강수까지 둔다.

그토록 강경하던 오거스타 내셔널도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던지 지난 2012년 회원 자격 규정을 바꾸었다. 오거스타 내셔널의 첫 번째 여성 회원 자리는 전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와 투자회사 부사장인 달라 무어가 차지했다. 이후 전 IBM 최고경영자였던 지니 로메티, 전 미국골프협회 회장 다이애나 머피 등 4명의 여성이 연이어 회원이 됐다.

소렌스탐은 현재까지 확인된 오거스타 내셔널의 7번째 여성 회원이자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 회원이다. 남자 프로골퍼로는 고(故) 아널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이상 미국) 등 극소수만이 회원 대우를 받았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아직 초대받지 못한 자리다. 현역 시절 소렌스탐은 메이저대회 10승을 포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통산 72승으로 투어를 지배하며 '골프여제'로 불렸다. 여자 골퍼로는 유일무이하게 꿈의 스코어인 59타를 쳤으며 여자골프 최초로 시즌 평균 68타대 스코어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쿨대 높은 오거스타 내셔널의 회원이 된 것을 스포츠에서 양성평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나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자 골퍼가 고작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스포츠면 톱뉴스가 되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았음을 깨닫게 한다.

국민대 골프과학산업대학원 교수, 스포츠심리학 박사

체육단체 지도자, 경기인 등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수 의무화해야

지금 정부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국가기관이나 각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지난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요건 조성 및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후 관련 증빙자료 보관 의무(3년)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장애인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법적 근거로 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소속 기관장, 직원, 학생 등이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실적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①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②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③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④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⑤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의 경우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나 기업체 등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배제가 없어지고 편의 지원, 장애인감수성과 인권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

다음 장 계속

그럼에도 문제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 대상에서 '체육단체'나 경기인(회원 종목단체에 등록된 선수(전문/생활),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및 시·군·구 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다.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체육단체나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만 경기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체육지도자 연수회나 각 종목 심판 보수교육 등에 여러 번 참석 하였지만 아직 한 번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교육' 이수를 권고받은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수는 2019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저출생의 여파로 점차 하락 중인 반면, 장애 인구는 2019년 261만 명에서 2020년 263만 명, 2021년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 전체인구 대비 장애 인구 비율은 5.1%이며, 2022년도는 265만 2,860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5,143만 명의 5.2%를 차지했다. 이 중에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자는 2022년부터 반등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3%p 증가한 33.9%로 상승했다.

'장애'는 손상을 가진 사람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적 장벽 사이 상호작용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 대상에 '체육단체'나 경기인(회원 종목단체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을 포함하여 '장애인식의 새로운 고침'을 통해 장애 이해와 함께 장애 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나 동네 스포츠클럽에 참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개선하고 배려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배리어프리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체육단체'나 경기인이 정책적으로나 스포츠맨십 등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란 배리어프리 개념이 스포츠 환경에 적용된 것으로 스포츠활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 즉 운동장, 용품, 규칙, 시설 등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면서 장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소통하며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하려는 스포츠의 사회·문화를 말한다.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는 '함께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스포츠의 즐거움을 장애인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추가 및 특별취득자 대상 연수 과정 교육 개시

<https://www.mbn.co.kr/news/sports/5015827>

[김성근 칼럼] 김현수의 눈부신 변신, 구자욱의 성장에 큰 박수 보낸다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403271006003&sec_id=510201&pt=nv

초등생 먹살 잡아끌고 때릴듯 위협한 체육교사 '집행유예'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31_0002682126&cID=10814&pID=10800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 밀양서 19~22일 열전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1099000052?input=1195m>

순창에 학교복합시설...서거석 교육감 "문화·체육활동 지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121812?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401044255

DGB생명, 유소년 풋살 페스티벌에 후원금 1500만원 전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01/2024040100310.html>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 '늘봄학교'에서 즐겨요

<https://www.ajunews.com/view/20240401142539196>

전남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건강증진 총력...90억 투입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951248&code=61121111&cp=nv>

전국 22개 초·중·고교에 수영장·체육관·주차장 생긴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5222_36438.html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